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7 주차 (4:39~5:21)**

**(2015년 3월 8일 - 2015년 3월 15일)**

**(제3권 7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3 권 -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3 월 8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주일)

### 오늘의 말씀 (요 4: 39~45)

39.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41.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앎이니라 하였더라
43.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 원문해석하기

- (39절) 그리고 그 마을로부터 나온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Ἐκ δὲ τῆς πόλεως ἐκείνης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τῶν Σαμαριτῶν)  
그녀가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하였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διὰ τὸν λόγον τῆς γυναικὸς μαρτυροῦσης ὅτι εἶπέν μοι πάντα ἃ ἐποίησα.)
- (40절) 사마리아사람들이 그를 향해 나와서 (ὡς οὖν ἦλθον πρὸς αὐτὸν οἱ Σαμαριῖται)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요청했습니다 (ἠρώτων αὐτὸν μένειν παρ' αὐτοῖς.)  
그래서 그가 이틀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καὶ ἔμεινεν ἐκεῖ δύο ἡμέρας.)
- (41절)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로 인해 믿었습니다  
(καὶ πολλῶ πλείους ἐπίστευσαν διὰ τὸν λόγον αὐτοῦ.)
- (42절)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τῇ τε γυναικὶ ἔλεγον)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말로 인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ὅτι οὐκέτι διὰ τὴν σὴν λαλιὰν πιστεύομεν.)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진실로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αὐτοὶ γὰρ ἀκηκόαμεν καὶ οἶδαμεν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ἀληθῶς ὁ σωτὴρ τοῦ κόσμου.)
- (43절) 이틀 후에 그(예수님)가 그곳에서 떠나 갈릴리로 갔습니다  
(Μετὰ δὲ τὰς δύο ἡμέρας ἐξῆλθεν ἐκεῖθεν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 (44절) 예수님이 그 자신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αὐτὸς γὰρ Ἰησοῦς ἐμαρτύρησεν)  
선지자가 그의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ὅτι προφήτης ἐν τῇ ἰδίᾳ πατρίδι τιμὴν οὐκ ἔχει.)
- (45절) 그래서 그가 갈릴리로 들어 가셨을 때 (ὅτε οὖν ἦλθεν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모든 갈릴리사람들이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 (ἐδέξαντο αὐτὸν οἱ Γαλιλαῖοι πάντα)  
그가 예루살렘에서 축제 기간 동안 행하신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ἐουρακότες ὅσα ἐποίησεν ἐν Ἱεροσολύμοις ἐν τῇ ἑορτῇ.)  
왜냐하면 그들이 그 축제에 갔었기 때문입니다 (καὶ αὐτοὶ γὰρ ἦλθον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서로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쪽은 사마리아인들이고 다른 한 쪽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두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지방 사람들의 신앙의 관점을 대조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42 절, 44 절을 읽으십시오.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그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사람들은 별 생각없이 그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런 여자라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 민망했을 터이고 같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 지역이 대도시도 아니고 당시에는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테니까요.

한편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공관 복음은 모두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는 둥 미쳤다는 둥 별 말을 다합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에서와 달리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지역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여 주면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개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사업이 번창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거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러한 신비체험이나 기복주의에 깊이 뿌리 박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좇아가는 신앙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만약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전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배경 좋고 명망있는 사람이 당신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이적들을 복음이라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구원은 철저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참담한 실체를 보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단지 기

적이나 이적을 통해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있다면 솔직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4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떠난지 3 일만에 갈릴리로 가신 것이지요. 사마리아에 머무셨던 이틀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단지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들처럼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복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 5:39-40).

성경 즉,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은 예수님의 영(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았나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언어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4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가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유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명절(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관 복음을 보면 이들의 특징은 무리를 지어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은 좀처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sup>20</sup>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sup>21</sup>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sup>22</sup>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sup>23</sup>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

계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sup>24</sup>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0-24).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때문인가요? 힘없이 죽어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인가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표적과 기사 그리고 믿음 (월요일)

### 오늘의 말씀 (요 4: 46~54)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52. 그 낮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제 칠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 아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 원문해석하기

- (46절) 그래서 그는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Ἦλθεν οὖν πάλιν εἰς τὴν Κανὰ τῆς Γαλιλαίας.)  
그곳은 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곳입니다 (ὅπου ἐποίησεν τὸ ὕδωρ οἶνον.)  
가버나움에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있는 어떤 왕의 신하가 있었었습니다  
(Καὶ ἦν τις βασιλικὸς οὗ ὁ υἱὸς ἠσθένει ἐν Καφαρναούμ.)
- (47절)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나오셔서 갈릴리로 들어 오셨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  
(οὗτος ἀκούσας ὅτι Ἰησοῦς ἦκει ἐκ τῆς Ἰουδαίας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했습니다 (ἀπῆλθεν πρὸς αὐτὸν καὶ ἠρώτα)  
내려 오셔서 그의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ἵνα καταβῆ καὶ ἰάσῃται αὐτοῦ τὸν υἱόν.)  
왜냐하면 그가 곧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ἤμελλεν γὰρ ἀποθνήσκειν.)
- (48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πρὸς αὐτόν·)  
당신들이 표적과 징조를 보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σημεῖα καὶ τέρατα ἴδητε.)  
당신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οὐ μὴ πιστεύσητε.)
- (49절) 그 왕의 신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αὐτὸν ὁ βασιλικός·)  
주님! 저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 오십시오 (κύριε, κατάβηθι πρὶν ἀποθανεῖν τὸ παιδίον μου.)
- (50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가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πορεύου, ὁ υἱός σου ζῆ.)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갔습니다  
(ἐπίστευσεν ὁ ἄνθρωπος τῷ λόγῳ ὃν εἶπεν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ἐπορεύετο.)
- (51절) 그리고 그가 내려 갔을 때 (ἤδη δὲ αὐτοῦ καταβαίνοντος)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οἱ δοῦλοι αὐτοῦ ὑπήντησαν αὐτῷ)

- 아이가 살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λέγοντες ὅτι ὁ παῖς αὐτοῦ ζῆ.)
- (52절)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그아이가 좋아지게 된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ἐπύθετο οὖν τὴν ὥραν παρ' αὐτῶν ἐν ἣ κομμώτερον ἔσχεν·)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어제 일곱시에 열이 그에게서 나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αὐτῷ ὅτι ἐχθὲς ὥραν ἐβδόμην ἀφῆκεν αὐτὸν ὁ πυρετός.)
- (53절) 그러자 그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ἔγνω οὖν ὁ πατήρ)  
예수님이 그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시간을  
(ὅτι [ἐν] ἐκείνῃ τῇ ὥρᾳ ἐν ἣ εἶπεν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ὁ υἱός σου ζῆ.)  
그리고 그 자신과 그의 모든 집이 믿었습니다 (καὶ ἐπίστευσεν αὐτὸς καὶ ἡ οἰκία αὐτοῦ ὅλη.)
- (54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다시 [행하신] 두번째 표적이었습니다  
(Τοῦτο [δὲ] πάλιν δεύτερον σημεῖον ἐποίησεν ὁ Ἰησοῦς ἐλθὼν ἐκ τῆς Ἰουδαίας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6 절을 읽으십시오.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간 머무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래서’라는 뜻의 ‘호운’(οὖν)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앞서 일어난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의 일이 일어났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성경 중 ESV 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So he came again to Cana in Galilee, where he had made the water wine. (John 4:46, ESV). 그렇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직전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고(44 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45 절) 성경은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행하셨는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2장 23 절에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자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신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무리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가 행하시는 이적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운’(οὖν)) 예수님은 자신이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그 마을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적을 행하십니다.

46절 후반절~47절을 읽으십시오.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나에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은 아마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거나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전하는 말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주석가들은 헤롯 왕(헤롯 안티파스)이 바로 그 왕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헤롯왕의 신하였던 셈이지요.



그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8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표적과 징조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서의 실제적 증거를 직접 보기 원했습니다. 물론 그 증거가 참인지 아닌지도 그들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지만 말이지요.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구약을 제대로 아는 유대인들이었다면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수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요즈음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 알고 그것이 마치 참된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레드 카펫을 밟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 생활이란 오히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광야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탐스런 열매가 주는 달콤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 열매들이란 다름 아닌 내 앞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지요. 사업이 번창하고 병이 낫고 자식이 잘 되며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멋진 기적들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부류의 신앙인에 속합니까? 이적을 보기를 원하는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말씀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담담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49~5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집을 방문하지 않으시고도 그의 아들을 치유하십니다. 50절에서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아들이 살아 있다”는 그 말씀을 왕의 신하가 순순히 ‘믿고’ 바로 집으로 향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53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예수님은 실제 현장에 계시지 않더라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면 곤란합니다. 이 본문은 왕의 신하가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고침을 받으러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48

절에서 “너희들은 표적과 징조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유대인을 질책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표적이나 징조를 구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왕의 신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채근하여 표적과 징조를 보여 달라며 붙잡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적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2:11). 그리고 두 번째 이적에서는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믿었습니다(4:53).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 이야기가 마치 당신의 눈 앞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 지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당신은 더 자극적인 표적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양의 문 그리고 은혜의 집 (화요일)

### 오늘의 말씀 (요 5:1~13)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5. 거기 삼십 팔년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12.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 원문해석하기

- (1절) 이 일 후에 유대인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Μετὰ ταῦτα ἦν ἑορτὴ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καὶ ἀνέβη Ἰησοῦς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 (2절)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Ἔστιν δὲ ἐν τοῖς Ἱεροσολύμοις ἐπὶ τῇ προβατικῇ κολυμβήθρα)  
다섯개의 행각을 가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라고 부르는  
(ἢ ἐπιλεγομένη Ἑβραϊστὶ Βηθζαθα πέντε στοᾶς ἔχουσα.)
- (3절)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자들 (중풍병자들)이 있었습니다  
(ἐν ταύταις κατέκειτο πλῆθος τῶν ἀσθενούντων, τυφλῶν, χωλῶν, ξηρῶν.)
- (4절) (원어에는 없음)
- (5절) 거기에 38년동안 그의 병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ἦν δὲ τις ἄνθρωπος ἐκεῖ τριάκοντα [καὶ] ὀκτὼ ἔτη ἔχων ἐν τῇ ἀσθενείᾳ αὐτοῦ.)
- (6절)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를 보셨을 때 (τοῦτον ἰδὼν ὁ Ἰησοῦς κατακείμενον)  
이미 오랜 시간동안 거기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καὶ γνοὺς ὅτι πολὺν ἤδη χρόνον ἔχει.)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낫고자 합니까?” (θέλεις ὑγιᾶς γενέσθαι.)

- (7절) 그 환자가 그[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ὁ ἀσθενῶν·)  
주여! 언제든지 물이 요동칠 때 저를 연못으로 던져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κύριε, ἄνθρωπον οὐκ ἔχω ἵνα ὅταν ταραχθῇ τὸ ὕδωρ βάλῃ με εἰς τὴν κολυμβήθραν·)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ἐν ᾧ δὲ ἔρχομαι ἐγώ, ἄλλος πρὸ ἐμοῦ καταβαίνει.)
- (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일어나십시오 (ἔγειρε)  
당신의 매트를 들어 올리십시오 (ἄρον τὸν κράβαττόν σου)  
그리고 걸으십시오 (καὶ περιπάτει.)
- (9절) 그리고 그 사람이 즉시로 나왔습니다 (καὶ εὐθέως ἐγένετο ὑγιής ὁ ἄνθρωπος)  
그리고 그가 그의 매트를 들었습니다 (καὶ ἤρην τὸν κράβαττον αὐτοῦ)  
그리고 그가 걸었습니다 (καὶ περιεπάτει.)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Ἦν δὲ σάββατον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 (10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τῷ τεθεραπευμένῳ·)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σάββατόν ἐστιν.)  
당신이 당신의 매트를 들고 떠나면 안됩니다 (καὶ οὐκ ἔξεστίν σοι ἄραι τὸν κράβαττόν σου.)
- (11절)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ὁ δὲ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나를 낫게 만드신 분이 나에게 “당신의 매트를 들고 걸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ὁ ποιήσας με ὑγιῆ ἐκεῖνός μοι εἶπεν· ἄρον τὸν κράβαττόν σου καὶ περιπάτει.)
- (12절)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ἠρώτησαν αὐτόν·)  
“들고 걸으라”라고 당신에게 말한 분이 누구입니까?  
(τίς ἐστιν ὁ ἄνθρωπος ὁ εἰπὼν σοι· ἄρον καὶ περιπάτει.)
- (13절)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ὁ δὲ ἰαθεὶς οὐκ ᾔδει τίς ἐστιν.)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중들로부터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ὁ γὰρ Ἰησοῦς ἐξένευσεν ὄχλου ὄντος ἐν τῷ τόπῳ.)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5장 전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발단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사건(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뒤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갈등,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연관시켜 읽지 않고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읽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먼저 기술하고 뒤이어 그 기적으로 촉발된 논쟁을 기술함으로써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5장은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과 그로 인한 논쟁,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이후 벌어지는 논쟁, (7장, 8장에서는 기적보다는 논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심), 9장에서는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일과 그 이후 불거진 논쟁 (10장까지 이어짐),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과 이어지는 유대인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이후는 마지막 유월절에 일어난 일과 부활에 관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그것으로 논쟁을 유발시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고자 한 것이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자

체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의 내용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1절을 읽으십시오. 그런 일(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과 그로 인해 그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 있은 후 유대인의 명절(축제일)을 맞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명절이 유대인의 절기 중 어느 절기였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비교적 상세하게 절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 (2:23, 6:4, 11:55)인지, 초막절 (7:2)인지, 그리고 수전절 (10:22) 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은 이례적으로 어떤 명절이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견지해야 할 태도는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서 억지로 그것을 밝혀내려고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절기가 어떤 절기 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명절(축제일)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연관된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유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읽으십시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다섯개의 행각을 가진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라 부르는 한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마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베데스다라는 한 연못의 위치와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양의 문’과 ‘다섯개의 행각’ 그리고 ‘베데스다’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들 하나 하나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지요. 먼저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은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록을 살펴 보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느 3:1).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느 3:32).

이 당시 중수된 이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당시 그 봉헌식에 참석한 무리들이 멈추어 선 곳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그치매”(느 12:39).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의 집’ [물이] 분출되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를 기다리며 38년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물이 동하여 분출될 때마다 병자들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낮게 되는데 그는 그 은혜의 집 앞에 누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행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성서학자 D.A. Carson은 이 다섯 행각이 상징적으로 모세 오경(토라)을 의미하며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D.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NTC) (William B. Eerdmans, 1991), p 242).

이제 내용을 종합해 보기로 하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북쪽 입구에 유대주의의 시작을 상징하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세오경을 38년 동안이나 끼고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으로 들어가 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지요. 이분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늘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자신이 지켜내야 할 율법이요 인간의 교훈으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은혜의 물 속으로 뛰어들었나요? 아니면 양문 곁 다섯 행각 (율법) 안에 아직도 병자로 누워 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낮고자 합니까? (수요일)

### 오늘의 말씀 (요 5:1~13)

1. 그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낮게 됴이러라)
5. 거기 삼십 팔년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낮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낮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12.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 원문해석하기

- (1절) 이 일 후에 유대인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Μετὰ ταῦτα ἦν ἑορτὴ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καὶ ἀνέβη Ἰησοῦς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 (2절)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Ἔστιν δὲ ἐν τοῖς Ἱεροσολύμοις ἐπὶ τῇ προβατικῇ κολυμβήθρα)  
다섯개의 행각을 가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라고 부르는  
(ἢ ἐπιλεγομένη Ἑβραϊστὶ Βηθζαθα πέντε στοᾶς ἔχουσα.)
- (3절)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자들 (중풍병자들)이 있었습니다  
(ἐν ταύταις κατέκειτο πλῆθος τῶν ἀσθενούντων, τυφλῶν, χωλῶν, ξηρῶν.)
- (4절) (원어에는 없음)
- (5절) 거기에 38년동안 그의 병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ἦν δὲ τις ἄνθρωπος ἐκεῖ τριάκοντα [καὶ] ὀκτὼ ἔτη ἔχων ἐν τῇ ἀσθενείᾳ αὐτοῦ.)
- (6절)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를 보셨을 때 (τοῦτον ἰδὼν ὁ Ἰησοῦς κατακείμενον)  
이미 오랜 시간동안 거기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καὶ γνοὺς ὅτι πολὺν ἤδη χρόνον ἔχει)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낮고자 합니까?” (θέλεις ὑγιᾶς γενέσθαι;)

- (7절) 그 환자가 그[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ὁ ἀσθενῶν·)  
주여! 언제든지 물이 요동칠 때 저를 연못으로 던져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κύριε, ἄνθρωπον οὐκ ἔχω ἵνα ὅταν ταραχθῇ τὸ ὕδωρ βάλῃ με εἰς τὴν κολυμβήθραν·)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ἐν ᾧ δὲ ἔρχομαι ἐγώ, ἄλλος πρὸ ἐμοῦ καταβαίνει.)
- (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일어나십시오(ἔγειρε)  
당신의 매트를 들어 올리십시오(ἄρον τὸν κράβαττόν σου)  
그리고 걸으십시오(καὶ περιπάτει.)
- (9절) 그리고 그 사람이 즉시로 나왔습니다(καὶ εὐθέως ἐγένετο ὑγιής ὁ ἄνθρωπος)  
그리고 그가 그의 매트를 들었습니다(καὶ ᾔρην τὸν κράβαττον αὐτοῦ)  
그리고 그가 걸었습니다(καὶ περιεπάτει)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Ἦν δὲ σάββατον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 (10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ἔλεγ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τῷ τεθεραπευμένῳ·)  
[오늘은] 안식일입니다(σάββατόν ἐστιν.)  
당신이 당신의 매트를 들고 떠나면 안됩니다(καὶ οὐκ ἔξεστίν σοι ἄραι τὸν κράβαττόν σου.)
- (11절)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ὁ δὲ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나를 낫게 만드신 분이 나에게 “당신의 매트를 들고 걸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ὁ ποιήσας με ὑγιᾶ ἑκεῖνός μοι εἶπεν· ἄρον τὸν κράβαττόν σου καὶ περιπάτει.)
- (12절)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ἠρώτησαν αὐτόν·)  
“들고 걸으라”라고 당신에게 말한 분이 누구입니까?  
(τίς ἐστιν ὁ ἄνθρωπος ὁ εἰπὼν σοι· ἄρον καὶ περιπάτει.)
- (13절)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ὁ δὲ ἰαθεὶς οὐκ ᾔδει τίς ἐστιν.)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중들로부터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ὁ γὰρ Ἰησοῦς ἐξένευσεν ὄχλου ὄντος ἐν τῷ τόπῳ.)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절을 읽으십시오. 거기에는 각종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공관 복음에 따르면 수많은 환자들이 각기 따로 등장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들 모두가 은혜의 집(베데스다) 앞 율법(다섯행각)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에게는 이들이 단지 병고침을 받아야 할 환자로서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들 모두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이들을 계속 정죄합니다. 더럽다고 쫓아내고 의롭지 못하다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베데스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3절 뒷 부분부터 4절은 사본에는 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헬라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5절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38년 동안 그의 병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남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7절), 또한



그 병이 그의 죄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14절). 그런데 왜 하필이면 38년된 병자라고 명시했을까요? 그냥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정도로 표현해도 될 텐데 굳이 38년이라고 명시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말 속에는 당시에 통용되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해결해야 할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서학자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 사건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대로 진 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sup>5</sup>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 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신 2:14-15).

하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에 나섰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하는 바람에 사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민13~14참조). 이 때가 출애굽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였습니다(민 10:11). 그러니까 그 이후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이지요. 완전히 율법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토라(모세오경)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은혜(40년 형벌을 감해주는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38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야가 오시면 그들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메시야의 도래와 그를 통한 온전한 회복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sup>2</sup>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sup>3</sup>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 <sup>4</sup>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sup>5</sup>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sup>6</sup>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sup>7</sup>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sup>8</sup>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sup>9</sup>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sup>10</sup> 여호와와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사 35장).

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수 많은 병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낫고자 합니까?”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으면 병에 익숙해져서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진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구절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의역하면 “네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육체적으로 낫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 사람을 구속하고 엮매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를 떠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은혜의 시간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애를 쓰며 기어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희망이 사라지다가 마침내는 온전히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지요. 여기서 포기란 낫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가 뚜렷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된 광야의 삶이 끝나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38년간 예루살렘 성문에서 성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 은혜의 성안으로 들어갑니다 (요 5:14).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지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낫게 하셔서 이제는 온전해졌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목요일)

### 오늘의 말씀 (요 5:1~13)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 거기 삼십 팔년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12.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 원문해석하기

- (1절) 이 일 후에 유대인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Μετὰ ταῦτα ἦν ἑορτὴ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καὶ ἀνέβη Ἰησοῦς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 (2절)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Ἔστιν δὲ ἐν τοῖς Ἱεροσολύμοις ἐπὶ τῇ προβατικῇ κολυμβήθρα)  
다섯개의 행각을 가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ἢ ἐπιλεγομένη Ἑβραϊστὶ Βηθζαθα πέντε στοᾶς ἔχουσα.)
- (3절)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자들 (중풍병자들)이 있었습니다  
(ἐν ταύταις κατέκειτο πλῆθος τῶν ἀσθενούντων, τυφλῶν, χωλῶν, ξηρῶν.)
- (4절) (원어에는 없음)
- (5절) 거기에 38년동안 그의 병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ἦν δὲ τις ἄνθρωπος ἐκεῖ τριάκοντα [καὶ] ὀκτὼ ἔτη ἔχων ἐν τῇ ἀσθενείᾳ αὐτοῦ.)
- (6절)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를 보셨을 때 (τοῦτον ἰδὼν ὁ Ἰησοῦς κατακείμενον)  
이미 오랜 시간동안 거기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καὶ γνοὺς ὅτι πολὺν ἤδη χρόνον ἔχει)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낫고자 합니까?” (θέλεις ὑγιᾶς γενέσθαι.)

- (7절) 그 환자가 그[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ὁ ἀσθενῶν·)  
주여! 언제든지 물이 요동칠 때 저를 연못으로 던져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κύριε, ἄνθρωπον οὐκ ἔχω ἵνα ὅταν ταραχθῇ τὸ ὕδωρ βάλῃ με εἰς τὴν κολυμβήθραν·)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ἐν ᾧ δὲ ἔρχομαι ἐγώ, ἄλλος πρὸ ἐμοῦ καταβαίνει.)
- (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일어나십시오(ἔγειρε)  
당신의 매트를 들어 올리십시오(ἄρον τὸν κράβαττόν σου)  
그리고 걸으십시오(καὶ περιπάτει.)
- (9절) 그리고 그 사람이 즉시로 나왔습니다(καὶ εὐθέως ἐγένετο ὑγιής ὁ ἄνθρωπος)  
그리고 그가 그의 매트를 들었습니다(καὶ ἤρην τὸν κράβαττον αὐτοῦ)  
그리고 그가 걸었습니다(καὶ περιεπάτει.)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Ἦν δὲ σάββατον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 (10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ἔλεγ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τῷ τεθεραπευμένῳ·)  
[오늘은] 안식일입니다(σάββατόν ἐστιν·)  
당신이 당신의 매트를 들고 떠나면 안됩니다(καὶ οὐκ ἔξεστίν σοι ἄραι τὸν κράβαττόν σου.)
- (11절)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ὁ δὲ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나를 낫게 만드신 분이 나에게 “당신의 매트를 들고 걸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ὁ ποιήσας με ὑγιᾶ ἐκεῖνός μοι εἶπεν· ἄρον τὸν κράβαττόν σου καὶ περιπάτει.)
- (12절)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ἠρώτησαν αὐτόν·)  
“들고 걸으라”라고 당신에게 말한 분이 누구입니까?  
(τίς ἐστιν ὁ ἄνθρωπος ὁ εἰπὼν σοι· ἄρον καὶ περιπάτει.)
- (13절)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ὁ δὲ ἰαθεὶς οὐκ ᾔδει τίς ἐστιν·)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중들로부터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ὁ γὰρ Ἰησοῦς ἐξένευσεν ὄχλου ὄντος ἐν τῷ τόπῳ.)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7절을 읽으십시오. 병자가 예수님께 사정을 말합니다. 물이 요동칠 때 자신을 넣어 줄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자신이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버려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을 한탄합니다. 은혜의 집이 이따금 요동쳐 물이 솟아 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는 단지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희생하고 이 병자를 먼저 넣어 주거나 아니면 이 병자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데 둘 다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병자의 이 말에 구원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병자처럼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들의 힘으로 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도 도와 구원에 이르게 할 여력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오직 죄가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8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매트를 들라! 걸으라!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가 기다렸던 치유 방법은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그 물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이

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야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치유 방법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놓여졌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지금과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떠나라!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즉시로 치유되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부활을 예표하는 명령입니다. 중풍병자나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치유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진정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요 5:19~29참조). 이스라엘의 회복은 죽은 자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결과로 38년 동안 사실상 죽은 자로 살았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산자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며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을 정리해 보십시오(이러한 정리는 자주 할수록 빛 가운데 비추는 것처럼 믿음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읽으십시오. 그 병자는 즉시 그 병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라시는 대로 즉시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토라의 저주(율법의 저주)에서 풀려 해방을 얻은 이 사람은 인간들이 만들어 낸 유대주의에 기반한 안식일 논쟁으로 휘말려 들어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당신이 매트를 들고 떠나 가면 안됩니다.” 이 말은 “매트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나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읽다보면 유독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이 바로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주일(부활의 날)로 대체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한번도 다른 날로 대체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또는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12장 45절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주요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sup>28</sup>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sup>29</sup>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sup>30</sup>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진정한 안식(일)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실제로 안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현장 실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1-2을 보십시오.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마 12:1-2).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니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다음 안식일 논쟁은 마태복음 12:9-21에 나옵니다. “<sup>9</sup>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sup>10</sup>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sup>11</sup>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sup>12</sup>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sup>13</sup>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마 12:9-13).

예수님의 안식일 이적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1:22~37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십니다. 11장 22절이 “그 때에”라는 말로 시작한 걸로 미루어 이 일은 같은 때(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단지 안식일에 일을 쉬고 교회에 열심히 가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안식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38절~42절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지만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인용해보기로 하겠습니다.

“<sup>38</sup>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다<sup>39</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sup>40</sup>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sup>41</sup>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러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sup>42</sup>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러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 12:38-42).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계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시기가 바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쉬신 시간이며 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 육신이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성

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 있어 육신으로 의를 성취해 내려고 애쓰는 모든 것이 아직도 우리가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안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3절~4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sup>43</sup>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sup>44</sup>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 되었거늘<sup>45</sup>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43-45).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언급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대의 의인들이라 칭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악한 세대’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진리를 왜곡하는 비진리, 진리의 대적자 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지켜 따르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비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그들의 잘못된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비진리에 의해 왜곡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비진리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 비진리를 진리인 양 착각하여 거기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나요?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11-1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38년 만에 치유받은 이 남자는 자리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향해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종용합니다.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나가는 따위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지요. 그러자 그 남자는 자신을 낫게 한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금 매트를 들고 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은 그저 그분이 시키신 대로 할 뿐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무책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관습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고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간에 지리한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요 5:14~21)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니라
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 원문해석하기

- (14절)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μετὰ ταῦτα εὕρισκει αὐτὸν ὁ Ἰησοῦς ἐν τῷ ἱερῷ)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보십시오. 당신이 나왔습니다 (ἴδε ὑγίης γέγονας.)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μηκέτι ἀμάρτανε.)  
당신에게 어떤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χειρόν σοί τι γένηται.)
- (15절) 그가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ἀπῆλθεν ὁ ἄνθρωπος καὶ ἀνήγγειλε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나를 낫게 만든 그분이 예수입니다 (ὅτι Ἰησοῦς ἐστὶν ὁ ποιήσας αὐτὸν ὑγιῆ.)
- (16절)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καὶ διὰ τοῦτο ἐδίωκον οἱ Ἰουδαῖοι τὸν Ἰησοῦν.)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에 그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ταῦτα ἐποίησεν ἐν σαββάτῳ.)
-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ἀπεκρίνατο αὐτοῖς·)  
나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일을 합니다  
(ὁ πατήρ μου ἕως ἄρτι ἐργάζεται καὶ γὰρ ἐργάζομαι.)
- (18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더욱 애를 썼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οὖν μᾶλλον ἐζήτουν αὐτὸν οἱ Ἰουδαῖοι ἀποκτεῖναι.)  
그가 안식일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ὅτι οὐ μόνον ἔλυνεν τὸ σάββατον.)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하고 (ἀλλὰ καὶ πατέρα ἴδιον ἔλεγεν τὸν θεόν)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ἴσον ἑαυτὸν ποιῶν τῷ θεῷ.)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을 치유해 주신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보십시오. 당신이 다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사람이 38년간 병으로 고생했던 이유는 이 사람의 특정한 죄 때문이며 예수님이 그사실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해석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었길래 그런 중병에 걸린 것인가? 그렇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 병의 심각성도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치유되었다 해도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또 다시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인가? 등등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격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상당히 위험하기 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특히 잘못된 신앙관이 바로 ‘인과응보적 신앙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과응보라는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이 땅에서 버젓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진작에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구절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거시적 관점에서 폭넓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을 포함한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보고 있는 14절은 요한복음 5장 전체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과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논쟁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그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14절)은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5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와 상충되어서는 안 되고,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상충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성경 말씀도 전체 성경의 틀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또 다시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린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분히 도덕적 인과응보의 개념이 가미된 자의적인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5장 말미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47절을 읽어 보십시오.

“<sup>45</sup>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sup>46</sup>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sup>47</sup>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요 5:45-47).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돌이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고, 고소하고, 심판합니다. 우리는 앞서 다섯 행각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지니고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미 살펴 보았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며 움썩달썩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은 율법 아래 놓인 인간의 고통스런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비로소 병에서 놓여 자유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고 건강을 되찾은 그를 성전에서 다시 보게 되자 예수님이 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당연히 또 다시 그를 율법으로 회귀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약간씩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리그렇더라도 이 부분을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전체를 부인하는 일이니깐요!

15절을 읽으십시오. 그 남자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낮게 하신 그분이 예수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12절에서 그 남자에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남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안식일에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고자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관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을 그 지긋지긋한 병마로부터 해방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10절을 읽으십시오.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sup>2</sup>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sup>3</sup>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sup>4</sup>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sup>5</sup>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sup>6</sup>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sup>7</sup>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sup>8</sup>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sup>9</sup>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sup>10</sup>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행3:1-10).

이 사건의 주인공도 나이가 40세가량 되었다고 말합니다(4:22).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생된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을 앉은뱅이로 살았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거지 노릇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번도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로 비로소 치유받았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두 발로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도 죽음과 부활이지요.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 나아가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16절을 읽으십시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당시 보편적인 사회법, 종교법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하더라도)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 정한 법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의 오랜 전통이고 관습이었기에 이를 어긴 예수님을 나무란 유대인들을 단순하게 비판할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예수님은 비난받아 마땅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님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들이 믿는 그 종교적 신념들이 비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무지하고 잘못된 종교적 관념을 가진 불쌍한 희생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무지하고 편협한 비진리에 사로잡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을 경험했고 그 후에는 돌이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괴물과 같은 종교적 관습들을 만들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산물이 바로 유대주의라 불리는 것이지요.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런 인간들이 만든 제도적, 사상적 산물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진리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잘못된 종교적 폐습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내 아버지도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요 5:14~21)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 원문해석하기

- (14절)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μετὰ ταῦτα εὕρισκει αὐτὸν ὁ Ἰησοῦς ἐν τῷ ἱερῷ)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보십시오. 당신이 나왔습니다 (ἴδε ὑγιᾶς γέγονας.)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μηκέτι ἀμάρτανε.)  
당신에게 어떤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χεῖρόν σοί τι γένηται.)
- (15절) 그가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ἀπῆλθεν ὁ ἄνθρωπος καὶ ἀνήγγειλε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나를 낫게 만든 그분이 예수입니다 (ὅτι Ἰησοῦς ἐστὶν ὁ ποιήσας αὐτὸν ὑγιᾶ.)
- (16절)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καὶ διὰ τοῦτο ἐδίωκον οἱ Ἰουδαῖοι τὸν Ἰησοῦν.)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에 그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ταῦτα ἐποίησεν ἐν σαββάτῳ.)
-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ἀπεκρίνατο αὐτοῖς·)  
나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일을 합니다  
(ὁ πατήρ μου ἕως ἄρτι ἐργάζεται καὶ γὼ ἐργάζομαι.)
- (18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더욱 애를 썼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οὖν μᾶλλον ἐζήτουν αὐτὸν οἱ Ἰουδαῖοι ἀποκτεῖναι.)  
그가 안식일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ὅτι οὐ μόνον ἔλυνεν τὸ σάββατον.)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하고 (ἀλλὰ καὶ πατέρα ἴδιον ἔλεγεν τὸν θεόν)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ἴσον ἑαυτὸν ποιῶν τῷ θεῷ.)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아

들이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식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일을 완수하셔야 그 때에 비로소 안식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율법에 명한 그 안식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안식의 유래는 하나님이 제 6일에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창2:2~3).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일까요?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주어진 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에 사람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16장은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식량으로 주는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이 때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인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굶고 살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직하라”(출16:23).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또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어진 것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할 때이고, 이 안식은 그들이 땀흘려 경작한 땅의 소산을 먹을 때가 아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실 때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안식이 백성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식은 구원 사역이 마무리 되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일을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당신 백성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고 부활하셔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당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상태였습니다. 율법에 매여 죄의 종으로 있을 동안에는 절대 안식일이니 안식이니 하는 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sup>15</sup>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sup>16</sup>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sup>17</sup>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sup>18</sup>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4-18).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중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오히려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에 속박된 자들을 풀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죄에 속박되시고 속박된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 자신이 죽음과 무덤에 갇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끝이 나는 것이고 진정한 안식이 찾아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sup>18</sup>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sup>19</sup>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sup>20</sup>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할 이라<sup>2</sup>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sup>3</sup>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 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일이 이루었느니라<sup>4</sup> 제 칠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렸으되 하나님은 제 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sup>5</sup>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sup>6</sup>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sup>7</sup>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 같이 일렸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말라 하였나니 <sup>8</sup>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sup>9</sup>그러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sup>10</sup>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히 3:18-10).

이 말씀에 따르면 안식의 문제는 특정한 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4:3). 하지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유대주의에 매여, 도덕주의에 빠져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히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역이 당신의 것이 되었나요? 진정으로 안식의 의미를 알고 안식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역이 필요한가요?

18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태도는 점점 더 호전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입증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읽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의 미를 좀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